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0.27(금) ~ 2023.11.2(목)

제공일시 2023 11 10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산업통상자원부 kpc 한국생산성본부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0.27(금) ~ 2023.11.2(목)

제공일시 2023 11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탄소배출권(수송·난방) 200유로 폭등 전망… “韓 수출기업 CBAM 연동 우려”

(전자신문 2023.10.30) 이준희 기자

- 유럽연합(EU) 수송·난방분야 배출권거래제도(ETS) 가격이 급등해 3년 뒤 200유로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클린에너지와이어(CLEW)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독일 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가 EU 수송·난방 배출권거래제도(ETS Ⅱ) 가격 급등에 대비한 독일 정부의 선제 대응을 촉구함
- EU는 2027년부터 디젤, 휘발유, 난방유 등 수송·난방 섹터 배출권거래제도인 'ETS Ⅱ'를 도입할 예정. 그러나 화석연료 보일러 금지 법안 지연 등 기후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려 'ETS Ⅱ' 배출권 거래 개시 가격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EU는 초기 배출권 가격을 톤당 45유로로 예상했으나, 아고라는 현 기후정책이 유지된다면 2027년 시작되는 'ETS II' 배출권 거래가격이 톤당 200유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 CBAM이 실행되면 한국 수출기업의 국내 배출권 가격과 격차가 커서, CBAM 인증서 구매가격이 상승하고 국내 배출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2. "AI 오남용 막아라" 英에서 첫 'AI 정상회의' 개최…규제 도입 본격화

(아시아경제 2023.10.30) 정현진 기자

- 내달 1일 영국에서 사상 첫 'AI 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전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올해의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던 생성형 AI, 챗GPT의 출시 1주년을 앞두고, AI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 허위 정보 유포를 비롯한 각종 AI 오남용 사례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이를 막고 AI에 따른 일자리 상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각국이 나설 것으로 기대됨

3. 미국 여야의원들, 반도체 산업 위해 환경검토 완화 촉구

(임팩트온 2023.10.31) 홍명표 기자

- 미 여야의원 약 120명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공장의 완공이 환경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것을 피하도록 도와주려 한다고 로이터가 28일(현지시각) 전함
- 이는 장기간의 환경 영향 검토 때문에 미국 내에 들어설 반도체 공장의 완공을 지연시켜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임
- 로이터에 의하면, 미국 상무부는 미 의회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환경 영향 평가와 검토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함

4. EU, 'DIGITAL 싱글 마켓' 위해 통신망 이용료 담은 'DNA법' 추진

(이데일리 2023.10.26) 김현아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주권을 지키기 위해 디지털 싱글 마켓(Digital Single Market·DSM)을 만들기로 함
-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을 위해선 네트워크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통신규제를 담은 ‘DNA(Digital Network Act)’도 추진 중
- 해당 법안은 프랑스텔레콤 CEO 출신인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이 앞장서 언급하고 있음

1. 배출권 거래 민간 중심으로… '시장 안정화 예비분' 제도 도입 추진

(전자신문 2023.11.1) 최다현 기자

- 정부가 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함
- 환경부는 '한국형 시장 안정화 예비분 제도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힘
- 정부는 지난 2018년과 2016년 시장거래량이 부족해 배출권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예비분을 공급한 바 있음
- 연구를 통해 환경부는 해외에서 도입된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 방안과 도입 효과를 검토할 계획임
- 배출권 수급 예측 방안도 마련함. 적정한 시장 유통 수량 판단을 위해 국내 배출권 수급 변동량을 예측할 지표개발 등을 추진함

2. 전기차 폐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자원으로 활용 속도

(디지털타임스 2023.10.30) 정석준 기자

-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폐지 등이 폐기물 관련 규제 면제대상으로 지정됨. 관련 기업들이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부는 30일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힘
- 환경부는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고철 △폐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함
-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됨

3. 중기부, 20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3000개 육성 목표

(뉴시스 2023.11.1) 이민주 기자

- 중기부가 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함. 2024년 주요 글로벌 경제 이슈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함
- 중기부는 중소기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기업에 대해 '생산성 혁신 One-Pass' 프로그램 도입을 논의함
- 지속가능한 생산성 혁신 인프라 조성에도 나섬. 목포는 20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 중소기업 3000개사 육성임

4. 한은·거래소, 내년 CBDC기반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실험 실시

(이데일리 2023.10.30) 최정희 기자

-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가 30일 디지털 금융·자산 인프라 구축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양 기관은 내년 디지털 중앙은행 화폐(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실험을 실시할 계획임
- 이번 실험에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탄소배출권 거래 모의시스템을 구축하고, 동 모의시스템 내에서 CBDC 기반 디지털 통화를 이용한 탄소배출권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를 점검할 예정임
- 양 기관은 11월말 구체적인 실험 내용을 공개하고, 내년 3~4분기 중 기술 실험을 실시할 예정임
- 다만, 이번 실험이 거래소가 운영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1. 스텔란티스, 배터리재활용 업체와 합작하고 중국 전기차 제조사 지분도 사들여

(임팩트온 2023.10.30) 홍명표 기자

- 자동차 브랜드를 14개 소유한 스텔란티스(Stellantis)그룹이 중국 전기차 제조사의 지분을 사들이고 배터리 재활용 업체와 협력하는 등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음
- 스텔란티스는 배터리 재활용 업체 오라노(Orano)와 손을 잡았다고 환경리더가 26일(현지시각) 보도함. 스텔란티스는 오라노와 협력함으로써 전기화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코발트, 니켈, 리튬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가치사슬에 진출하고자 함
- 스텔란티스는 경쟁사에 비해 뒤쳐진 전기차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예 중국 전기차 제조사 립모터(Leapmotor)의 지분도 사들임. 스텔란티스는 15억 유로(약 2조1469억원)을 투자해서 립모터의 지분 20%를 매입해서 이사회 의석 2석도 확보함

2. 애플, 나이키 공급망 청정에너지 도입 가속화 이니셔티브 CEBI 출범

(ESG투데이 2023.10.30) 마크 시걸 기자

- 미국 대기업들이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청정에너지 조달을 가속화하는 이니셔티브인 '클린에너지 구매자 인스티튜트(CEBI)를 출범함
- 애플과 나이키가 시작했으며 아마존, 메타, 펩시, REI Coop 등의 기업들이 창립 단체로 참여함
- 애플은 2015년 '공급망 청정에너지 프로그램(Supplier Clean Energy Program)을 설립해 재생에너지 조달옵션, 교육자료, 국가별 정보, 데이터 통찰력, 재생에너지 전문가의 참여기회 등 리소스를 협력업체들에게 제공해왔음
- 애플은 28개국 250개 이상 협력업체가 2030년까지 모든 애플제품 생산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이번 이니셔티브에서도 전문 지식과 내부 교육자원을 통합해 공유 커리큘럼을 개발해 청정에너지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임

3. GM·테슬라 이어… 포드도 16조원 전기차 투자 미뤘다

(조선일보 2023.10.28) 정한국 기자
(M투데이 2023.10.29) 이상원 기자

-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는 26일(현지 시각) "전기차 수요 둔화를 감안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등 120억달러(약 16조원) 규모 전기차 관련 투자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힘
- 포드는 이날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기차 사업부인 'e-포드'가 13억달러(약 1조7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이같이 전함
- GM과 테슬라, 폴크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잇따라 전기차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음. 고금리와 경기 침체, 흑연 같은 중국의 핵심 원자재 수출 통제 등 다중 악재를 맞닥뜨린 업체들이 전략 변경에 나선 것임
- 내연기관보다 부품 수가 적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커지는 것도 이 같은 움직임의 한 원인임
- 반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전기차 수요 감소를 '일시적 허들(장애물)'로 규정하고, 생산 계획 변경 없이 전기차 전환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4. 코카콜라, 캐나다에서 100% 재활용 플라스틱 병 출시

(ESG투데이 2023.10.27) 마크 시걸 기자

- 코카콜라는 캐나다에서 100% 재활용 플라스틱 병을 출시한다고 발표함
- 대표 브랜드인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환타를 포함한 500ml 스파클링 음료 병은 2024년 초까지 캡과 라벨을 제외한 100%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함
- 코카콜라는 '지속가능한 포장 플랫폼' 목표를 통해 2030년까지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병이나 캔에 해당하는 양을 수집해 재활용하고, 2025년까지 포장의 100%를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음

1. 포스코-롯데 이차전지 맞손… 6조 규모 동박원료 공급 계약

(한국경제TV 2023.11.1) 고영욱 기자

- 1일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에 따르면, 양사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동박원료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에 동박 원료인 밀베리(Mill Berry)와 그래뉼(Granule) 등의 구리 스크랩을 10년간 60만톤 공급함. 이는 하이엔드 동박 생산을 위한 원료임. 기대 매출은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이번 원료 장기 공급계약으로 말레이시아, 스페인을 비롯해 향후 미국 등의 해외 생산 기지에 안정적인 원료를 조달해 글로벌 시장 확대 기반을 마련함
- 양사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함. 양사 주요 임원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협력 과제의 선정과 점검, 개발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됨

2. SK지오센트릭, 글로벌기업 '암코'에 울산ARC에서 생산한 열분해유 공급한다

(그린포스트코리아 2023.10.26) 임호동 기자
(연합뉴스 2023.10.26) 장하나 가지

- SK지오센트릭이 오는 2025년부터 생산 예정인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를 글로벌 포장재 기업에 공급함
- SK지오센트릭은 글로벌 포장재 기업 암코(Amcor)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활용 플라스틱 원료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힘
- 이번 공급협약으로 SK지오센트릭은 2025년부터 생산하는 울산ARC 열분해유를 원료로 제작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을 암코에 공급함
- 암코는 공급받은 열분해유를 원료로 의약품, 화장품, 식품 제품 등에 쓰이는 포장재를 제작해 글로벌 소비재 기업에 판매할 계획임. 양사는 포장재 관련 추가협력도 이어나가기로 함

3. LS MnM, 이차전지 소재 본격 진출…6700억 투자 승인

(이데일리 2023.10.27) 김은경 기자

- LS MnM이 이차전지(배터리) 소재 사업에 진출함
- LS MnM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울산 온산제련소 인접 9만5000m2 부지를 활용해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EVBM온산)에 6700억을 투자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힘
- LS MnM은 EVBM온산을 온산제련소 인근 부지에 건설해 기존 동제련소 인프라를 활용하고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임
- LS MnM은 1단계 투자에 이어 2단계로 새만금에 4만톤의 컴플렉스 공장을 증설해, 2029년에는 전기차 약 125만대 규모에 해당하는 황산니켈 6만2000톤(니켈 메탈 기준)을 생산할 예정임

4. CJ대한통운, 배터리 분야 물류사업 진출… 제조사 대상 3000억원 프로젝트 수주

(한국정경신문 2023.11.1) 이정화 기자

- CJ대한통운이 배터리 제조사를 대상으로 올해 3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물류를 수주했다고 1일 밝힘
- 미국 현지에 배터리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주요 고객임
- 향후 3년간 3개 공장 준공에 관련된 자재와 설비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어 소재와 부품, 완제품, 회수 등으로 이어지는 배터리 공급망 전 과정으로 물류 사업을 확장해 나갈 방침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10.27(금) ~ 2023.11.2(목)

제공일시 2023 11 10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美, 멕시코만에 새로운 풍력 에너지 지역(WEA) 확정

(임팩트온 2023.11.2) 김환이 기자

-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이 멕시코만에 새로운 풍력 에너지 지역(WEA)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지난 31일(현지시간) 발표함
-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연안에 위치한 WEA는 청정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용량을 구축해 300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임. 이 중 최대 부지는 텍사스에서 47.2마일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약 6억 평에 이름. 이곳에서만 2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임
- 이번 발표는 2030년까지 30기가와트(GW)의 해상 풍력 에너지 용량을 배치하겠다는 미 바이든 행정부 목표의 일환임
- 해양에너지관리국은 투명성과 대중들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WEA 지도를 웹사이트에 공개했으며, 향후 60일 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통해 매각 제안 공고를 발표할 예정임
- BOEM 이사 엘리자베스 클라인은 "산업계, 파트너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멕시코만에서 해상 풍력 임대를 판매하고 있다"며 "멕시코만의 해양 생물을 보호하면서 해양 지역을 개발하고 정부 파트너, 연안 주, 지역사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 미 정부는 환경적 이점 외에도 일자리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 공급망 구축, 어업 보상 완화 기금 지원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임
- BOEM은 이번 프로젝트에도 두 가지 임대 규정을 포함함. 낙찰기업은 입찰가의 일부를 해상 풍력 에너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미국 내 공급망을 개발하는 데 활용해야 함. 이 외에도 어업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43만달러(약 5억 8381만원) 이상을 어업 보상 완화 기금을 설립해야 함
- 또한 임대 활동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원주민들, 산업계 및 지역사회의 참여 및 소통 활동을 BOEM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해상 프로젝트 건설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임